

독도 에세이 참가자들 수준 높은 작품 발표해...

1면에 이어서



▲ First Place - 중학부문 지미림 8학년, 심사위원 김은한 박사



▲ First Place - 대학.성인부문 Angela Chong, 심사위원장 이 중시 박사



▲ First Place - Kristina Fields 8th Grade, 심사위원 이강원 교수

지난 3개월 동안 펼쳐졌던 The Grapevine Times주최 독도 에세이 공모전이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품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 6월 1일 시상식을 가졌다.

Wakefield MA에 위치한 The Savings Bank Theater에는 독도 에세이 참가자들을 비롯해, 가족, 친지, 친구, 뉴잉글랜드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인 이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외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함’이 목적인 이번 행사는 ‘독도의 역사 (편견을 버리십시오.)에 대하여, 그리고 독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Research and write an unbiased paper about the history of the Dokdo island.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the importance of this island to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Japan?)’라는 주

제로, 5학년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에세이는 수준급 작품들로, 심사위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날 독도 에세이 시상식에 참석한 보스턴 총영사관 박강호 총영사는 축사에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이번 TGT의 독도 에세이 공모전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보스턴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우리 동포사회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독도에 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 의식에 대해 고민하고 공을 들여 작품을 제출한 참가자 모두를 격려했다.

이번 독도 에세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중시 박사는 “한 작품 한 작품 심열을 기울여 쓴 응모자의 에세이가 우열을 가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해법 면에서 좀더 새로운 방안쪽에 생각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김은한 박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제를 제시해야 하며-> 글을 쓰기 전 충분한 자료 준

비가 필요하고 -> 지루한 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고 -> 강한 단어, 문장이 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를 눈앞에 앉혀 놓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듯 써야 한다”며,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하여 느낀점을 기록해 참가자들이 다음번 글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도서 11권을 도네이션 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어 심사를 맡았던 남일 교장은 “학생들의 글 속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애국애족 정신이 들어 있어, 긍정적인 밝은 빛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영문 심사를 맡았던 이강원 교수는 “독도 에세이 평가를 위해 전에 알지 못했던 독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작품 하나 하나가 모두 훌륭하고, 그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문쪽 심사위원 한문수 교수는 심사후기에서 “이번 독도 에세이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들과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역사를 다시 짚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영문쪽 심사위원 함혜란 박사는 “에세이마다 독도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었고, 나라사랑을 겸하여 진실 탐구에 열성을 뜨겁게 느끼게 했다”고 밝히고, “전반적으로 창의성이 미흡했으며, 참신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독도 에세이 각부문별 1위에는 한국어 중학생 부문에 8학년 지미림, 한국어 대학성인 부문에 Angela Chong, 영어 중.고생 부문에 8학년 Kristina Fields, 영어 대학성인 부문에는 Jared Pizza과 Jieun Park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방문중인 박지은 학생을 대



◀ 내빈석의 심사위원분들

독도 에세이 참가자들 수준 높은 작품 발표해...

6면에 이어서



▲ First Place - Jared Pizza (College), 보스턴 영상관 박강호 중영사

신해 홍지복씨가 받아 전달하기로 했다.

독도 에세이 1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삼성 갤럭시 노트 10.1, 2위와 3위는 상패와 Gift Card,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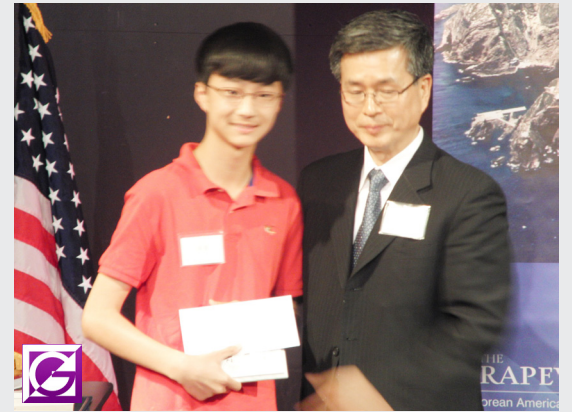
▲ First Place - Jieun Park (College) 을 대신해 홍지복씨가 받았다, 보스턴 영상관 박강호 중영사

는 상패와 김은한 박사께서 도네이션한 도서가 전달 되었다.

TGT(The Grapevine Times)는 “이번 독도 에세이 행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새롭고 참신한 작품을 기대한다”면서, “올바른 역사인식 심어주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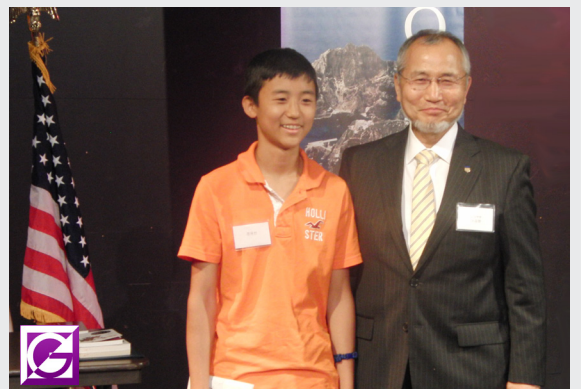
TGT 독도 에세이 1위 수상자들의 소감은
14 면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수상자들의 소감과 작품, 사진은
TGT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thegrapevinetimes.com



▲ Second Place - 이린 (7 학년) , 심사위원 남일 교장



▲ Second Place - 이지훈 (성인) , 뉴햄프셔 한인회 박선우 회장



▲ Second Place - Michael Chung (8학년), 심사위원 이강원 교수



▲ Second Place - Amanda Huff (Adult Class -Maine Korean Language School)(사진 왼쪽부터: 심사위원 함혜란 박사, Amanda Huff, 메인 한글학교 신영옥 교장